크나 작으나 이건 못 한다 하는 약한 마음을 갖지 마세요

☞ 21면에서 계속

입니다.

그런데 그 자석이 떨어질 것도 없고 붙을 것도 없다는 것은 무엇이냐? 왜 그런가? 이 금강자석이라는 것은 물건인 쇠 자석이 아니라 체가 없는 자석이라서 예를 들어 헝겊 쪼가리도 붙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헝겊 쪼가리든지 쇠 쪼가리든지 다 거기에 의해서 돌아가게 돼 있고 분해가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지금 현실에서 보십시오. 그 자석에다가 쇠를 하나 붙여 보면 그 쇠 붙인 데가 또 자석이 돼서 다른 게 또 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의 능동적이고 묘하고 광대무변한 이 금강자석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못 믿어하고 업신여기고, 바깥으로 신을 찾아서 '아이고 저 위대한 신을 내가 찾으면 잘될 테지.' 하는데 타의에서 찾는 그 마음은 다 지금부터라도 소멸시키고 모든 것을 안에서 구하는 데에 역점을 두시고 탐구하는 데에 역점을 두시는 것이 옳을 줄 압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책 한 권 끼고 공책 하나 들고 연필 하나 가지고 책 보따리를 어깨에다 척 둘러매고 가서 공부를 하면 됐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시대가 벌써 변천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 옛날에 하던 그 방식으로 자손들을 키운대도 아니 됩니다. 지금 시대는 마음의 에너지로 하여금, 그 금강자석의 에너지로 인해서 거기에서 마음과 마음이 이끌려서 한데로 새지 않게 만드는 자석을 가지고 해야지, 몸을 붙들려고 하고 말로 하려고 하니까 이거는 가뜩이나 창살 없는 감옥에서…, 지금 끌려가는 형국인데 말입니다, 허허허. 가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끌려가서 죽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이 공부는 죽고 사는 게 없고 또 생사윤회에 끄달리지 않으며 또는 우리가 자유권을 가질 수 있는 공부입니다. 자기가 뿌려 놓은 씨들도 자기 자석에 의해서, 그 자석의 위력이 딴 데로 새지 않는 마음, 올바른 마음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한테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 육신, 허수아비 같은 육신만 잡으려고 하니까 그것은 안 되는 법입니다. 육신은 개방시키면서 마음으로는 항상 그렇게 자석과 같은 마음으로 서로 잡아당긴다면 그것이 바로 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부처님 법이 따로 있고 우리의 생활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부터는 그것을 고치십시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그렇게 놓고 참선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고 오손도손 얘기를 하는 것도 참선이요, 말다툼을 한다 하더라도 참선입니다. 만약에 그 근본을, 그렇게 돼 있는 근본을 아실 것 같으면 우리는 화가 나도 화를 자재할 수 있죠. 놓고 돌아가니까 말입니다. 여러분이 싸움을 했다고 일 년 이 년, 생명이 다할 때까지 화가 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정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웃음도 한계가 있고 우는 것도 한계가 있고 속상한 것도 한계가 있고 잘사는 것도 한계가 있고 못사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고정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했다는 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또 한마디 하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요즈음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문제에 대해 여러분은 납득을 하십니까? 세계적으로 납득을 하고 국가적으로도 납득을 하고 우리 생활적으로도 납득을 하시고 사회적으로도 납득을 하시겠죠. 물론 저보다도 더 잘 아시겠죠. 그렇게 아시고 가는 분들이 만약에 이 공부를 하신다면, 한생각에 모든 걸 아주 자재력 있게 해결할 수 있는 능동적이고도 지혜적이고도, 여러분의 불성의 그 능력을 다 같이 한 주먹에 쥐고, 이것은 한 손에 들은 걸로써 한생각을 해서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86, '88 문제도 아주 심각한 문제지마는 우리는 지금도 가난한 전세방에 그것도 반쪽으로 나누어진 이 전세방에서 그나마도 모두가 참 공평하지도 못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참 살기가 극난하다고 봅니다. 살기가 극난한 게 아니라 겁난다 이겁니다. 왜 겁나느냐. 나는 6·25를 지내 봤으니까 압니다. 지금은요, 6·25처럼 그렇게만 싸운대도 또 겁 안 납니다, 달아나가면 되니까.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은 공중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조그마한 새우 싸움이 만약에 고래 싸움이 된다면 큰 문제가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공부가 좀 안됐다 하더라도 한생각으로서 급하면 급한 대로 보이면 보이는 대로 '이건 이렇게 돼야겠어!', '지금 우리 방석을 튼튼히 해야 되겠다.', '천만에! 여기에는 너희들이 손을 못 댄다!' 라는 마음으로 나서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몸도 그렇습니다. 모든 게 작으나 크나 '이건 못 한다.' 하는 약한 마음을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금강자석은 약하지 않은 겁니다. 모든 자석은 한데 합쳐져서…, 우리는 조직입니다. 지금 지구 안에 있는 여러분이 바로 조직체입니다. 한 그릇 안에서 우리는 한 살림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세계적인 이 자체가 큰 살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살림을 하는 데는 한생각이, 그 생각이 아주 필요합니다. 만약에 어떠한 머저리 같은 문제가 일어난다면 모두가 한생각, 지혜를 이런 때 써야 하는 겁니다. 아하, 저 사람네들은 안하무인이니까 저 사람네들의 주장심, 즉 말하자면 금강자석이 있는 것을 홀딱 여기다 붙여 버리면 되겠구나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또 그 사람이 아주 유망하다 할 때는 금강석을 그쪽에다가 붙여 주죠. 그쪽 자석에다 붙여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 백 명의 능력보다도 한생각이 커지게 됩니다.

만약에 열 사람의 능력을 거기다 보충해 준다면, 바로 금강자석의 그 능력에 투입을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기울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자유권을 가졌기 때문에…, 이걸 말로 어떻게 다 하리까? 하나하나 모든 것이 달리 나투어서 돌아가는 것을 여러분이 지혜로써 닥치는 대로 하는 것을 알아야지 어떻게 내가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하고 이루 종차 가르칩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깨닫는 데만 역점을 두시는 게 좋다. 그러면서도 가정이라는 조그마한 데의 문제를 놓고 검토하고 실험해라. 만약에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큰 문제가 생긴다 할 때 이것을 자석에다 탁 놓는단 말입니다. 놓으면은 이 자석은 자기의 근본에서 나오는 분신이라서 에너지처럼 돌아다니며 다 해결을 합니다. 무에서는 무대로 해결을 하고 유에서는 유대로 부지런하게 뛴다면 이거는 정말 시쳇말로 '왔다' 입니다. 그렇게 걸리지 않고 능히 한생각에 우주가 들릴 수 있다면, 또 한생각에 우주를 덮을 수 있고 돌릴 수 있다면 이거보다 좋은 일이 어딨습니까? 이것은 바로 50%의 미완성을 되찾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억겁 전 년서부터 이렇게 진화돼서 나오면서 인간까지 등장을 했는데 이 등장한 자체가 바로 여기에서 배우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를 학습 도장이라고도 볼 수 있고 공부하는 학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연구하는 연구실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고 탐구해 가지고 지구 자체의 색상에서 벗어나서 우리 한생각으로서 일체 만법의 능력을 바로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손이 안 닿는 데가 없고 나 아님이 없고 내 자리 아님이 없어서 바로 우주적으로도 삼천대천세계적으로도 우리는 능히 한생각에 그쪽으로 고개를 끄떡만 해도 벌써 거기 가서 같이 상응하면서 한번 거기서 하루 동안 살아보기도 할 겁니다. 하루 동안 살고 여기 왔더니 벌써 일주일이 걸렸다고 하던가요? 또 하루 동안 살았더니 아, 일 년이 됐답디다. 하루 동안 살았더니 만 년이 됐다 합디다. 이 뜻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사람이 이름을 지어서 하루다 이틀이다 한 달이다, 또는 가을이다 봄이다 이렇게 사계절을 정해 놓은 것이니 우리가 얼마나 참 똑똑합니까? 사계절을 이렇게 정해 놓고 말입니다. 그러니깐 하나 버릴 게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 쓸 게 없다는 것은, 너무 나투어서 빨리 돌아가니까 공했다고 한 거지….

여러분이 그거를 납득해서 공부하는 데 열심히 할 수 있는 근본을 스님들한테도 자꾸 여쭤보고 하시는 게 참 좋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달았다 할지라도 겸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또 이 마음으로 깨달았다고 해서 내가 조금 싹이 났다고 해서 내가 나라고 세우고 모두를 내 눈 아래로 본다면 그것은 이룬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 나가는, 마음 자세가 올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또 꿈에 보인다고 하면서 꿈과 현실을 가리는데 꿈에 이러이러해서 나는 요런 게 됐으니까 요렇게 해야겠다 하는데 왜 꿈을 가지고 생각을 하느냐 말입니다. 꿈도 현실이요, 현실도 꿈이니 둘이 아닙니다. 둘이 아닌데서 내 중심을 잡아서 주인공에 탁 놓고 놓은 자체를 생각할 때 믿음직하게 듬직하게 하면 바쁜 것이 바쁘지도 않아! 그랬는데 내가 바쁘지도 않은 사이에 벌써 일은 돌아왔어. 일은 해결이 됐어.

이렇게 되는 것인데 꿈에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이것이 무엇인가?' 그것도 꿈에 알았으면 '나를 공부시키려는 조짐이구나.' 하고 좋게 돌려서 놓고, 놓고 또 가다 생각나면 또 한번 생각해 보고 탐구해 보고 또 놔라. 그걸 노상 붙들고 가면 그냥 죽죽 오는 것이, 오는 것도 없는 게 오는 것이 그냥 막혀 버리면 살림을 어떡합니까? 여러분이 살림을 어떻게 걸리지 않고 하겠습니까? 마음입니다.

그래서 육조 스님도 이런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오조 홍인 선사가 금강경에서 한 대목을 설해 주시면서 말입니다, "너는 말을 하지 말고 말을 해 봐라." 이러니까 육조 스님이 "내 이 몸이 청정한 줄 어찌 알았으리까." 하셨더랍니다. 청정하다 하는 것은 더럽고 깨끗한 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고 어렵지 않은 거를 내가 다 하는 거를, 일체 만법의 모든 것을 하나도 뜀이 없이 내가 한다는,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청정함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청정함을 어떻게 알았으리까? 스스로 내가 갖추어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았으리까? 스스로 내가 흔들리지 않음을 어떻게 알았으리까? 스스로 일체 만법의 마음을 내는 줄 어떻게 알았으리까?" 이렇게 말 한마디 하게 되자 그것은 바로 오조 홍인 선사나 육조 혜능 선사가 둘이 아니게 하나로 그냥 합쳐져 버렸어요.

합쳐져 버렸으니까 그것은 이쪽 쇳덩어리가 저쪽 쇳덩어리로 한데, 예를 들어서 자석과 같이 붙어 버린 것처럼 돼 버렸거든. 그러니까 "네가 가는 것이 내가 가는 것이고 내가 가는 것이 네가 가는 것이니 이 바리때와 가사 장삼을 가지고 가다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바리때나 가사 장삼이 법을 주고 받는다고 생각을 한다면 만날 싸움이 날 테니 이건네 대에 없애라." 이럭하고선 마지막으로 주셨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런 거를 가만히 생각해 볼 때에, 서로 둘이 말을 할 때는 이게 둘이 아닌 것입니다. 말과 뜻이 맞으면. 뜻이 맞지 않으면 벌써 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은 뜻이 맞지 않으나 맞으나, 이것이 뜻이 맞지 않게 말을 해서 저쪽 상대방에게 해로울 기세가 보이고 또 역정을 낼 것 같으면 말은 하지 말고 안에다가 놓으면, 거기에다가 일임해서 놓으면 바로 그쪽 자석으로 염파가 가죠. 오관을 통해서 다 염파로 통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우주간 법계는 거미줄같이 전부 허공에 쳐져 있다 이겁니다. 아마 전체 망원경을 가지고 본다면 한 부분이라도 볼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정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웃음도 우는 것도 한계가 있고
잘사는 것도 못사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했다는 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85년 7월 21일 정기법회 법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해양심층수 100%로 만든 청정, 안심 건강소금
MQ해양高미네랄로 가족건강을 지키자!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세트



MQ해양고미네랄은..
– 강원도 고성에서 100% 해양심층수로 탄생한 고미네랄 소금
– 해양심층수의 모든 미네랄을 담은 MQ해양고미네랄
– 일반 정제염 대비 마그네슘 380배, 칼슘32배, 칼륨 49배 등 풍부한 미네랄 함유
– 일반 정제염 대비 나트륨이 23% 이상 적은 저나트륨(염도75%) 소금
– 한포(3g)를 물(500ml)에 타서 마시면 경도 1,000이상의 고미네랄 워터로 변신하는 미네랄 워터용 소금

제품구성 MQ해양 고미네랄 스틱 2박스 (31포 x 2박스) + MQ해양 고미네랄 1병

특별보급가 75,000원

엠큐 눈소금 세트



매일매일 건강에 도움을 주는 필수 미네랄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엠큐눈소금, 매일 모든 음식에 넣어 먹는 소금을 바꿔 건강을 지키자!
해양심층수 이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해양심층수 100%를 사용하고, 순간공중결염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소금 엠큐눈소금은 요리의 맛을 살려주고 건강을 드립니다. 엠큐눈소금으로 온가족의 맛있는 식사와 건강을 지키세요.

제품구성 고운소금 150g x 2EA + 굵은소금 125g x 1EA = 425g

특별보급가 52,000원

김오곤원장의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침향





세계 3대 향중의 하나로 불리는 그 귀한 침향,
김오곤한의사의 배합기술로 엠큐눈소금과 만나 엠큐해양고미네랄 침향으로 탄생

– 건강을 한번 더 생각하고 만든 미네랄과 침향제품으로 성분과 맛이 입증
– 김오곤한의사의 엄선한 배합 기술을 토대로 탄생한 한방과 과학이 어우러진 제품
– 낮은 염도, 고미네랄 그리고 침향이 한 포 한 포에 들어 있는 제품
–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 깨끗한 미네랄의 참 맛, 침향의 건강한 향과 맛까지 포함한 신개념 제품
– 한 포 (3g)을 물 500mL에 타면 맛있는 고미네랄 침향 워터로 황홀한 변신

제품구성 279g (3g x 93포) / 원재료 : 소금 93% (해양심층수 100%), 침향 7% (인도네시아 수입산)

특별보급가 125,000원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이란?** 해양심층수를 미세한 안개 상태로 쪼개어 공기중에 분사한 후, 열풍을 불어 넣어 수분을 순간적으로 증발시키는 기술로 이렇게 해서 해양심층수의 수분을 제외한 모든 미네랄을 소금에 포함시키고, 눈처럼 아래로 떨러뜨려서 소금을 제조하는 기술

구입처 :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문의 : Tel 1688-9099 입금계좌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